



# 2022년 자본시장 전망 및 주요이슈

---

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

# 목 차

---

**1** 주식시장 리뷰 및 이슈

**2** 채권시장 리뷰 및 전망

**3** 외환시장 현황 및 전망

**4** 가상자산시장 현황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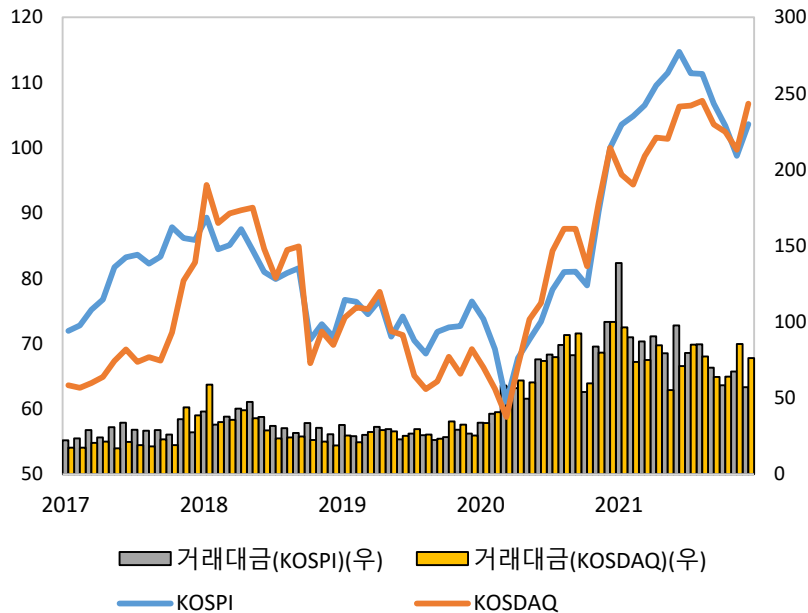
# 1. 주식시장 리뷰 및 이슈

# 2021년 주식시장 리뷰 1: 홍보 국면 속 거래대금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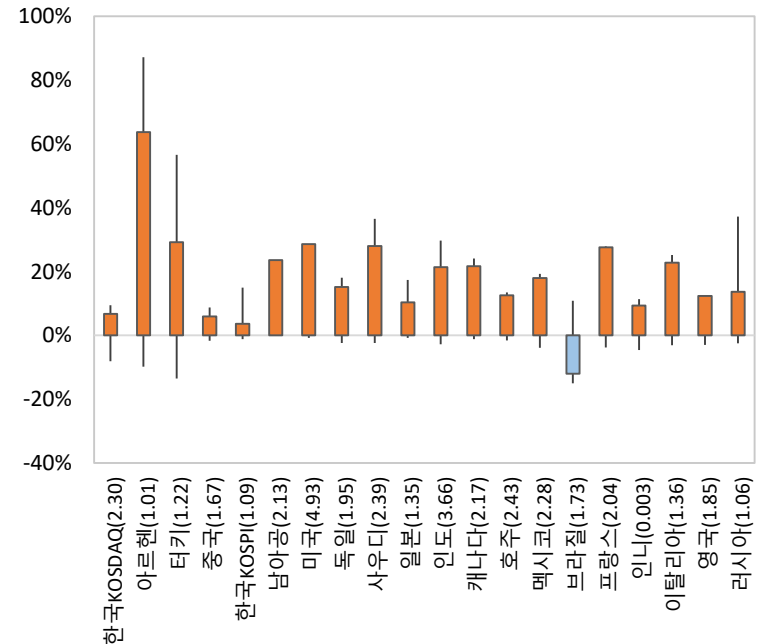
## ○ 2021년 세계 주요증시 대부분이 상승한 가운데, KOSPI는 4%, KOSDAQ은 7% 상승으로 다소 부진한 성적

- › KOSPI와 KOSDAQ은 2021년 박스권에 머물며 거래대금도 감소하는 추세 보임
- › KOSPI의 PBR은 1.09로 아직 주요국가 대비 낮은 수준

KOSPI 및 KOSDAQ 지수 추이



주요국의 2021년 주가지수 및 PBR 비교



주 : 1) 주요 지수의 2021년 고가, 저가, 종가의 2020년 말 종가대비 수익률  
2) 국가명 옆 숫자는 국가별 대표지수의 PBR(2022년 1월 4일 기준)  
자료: KRX, 자본시장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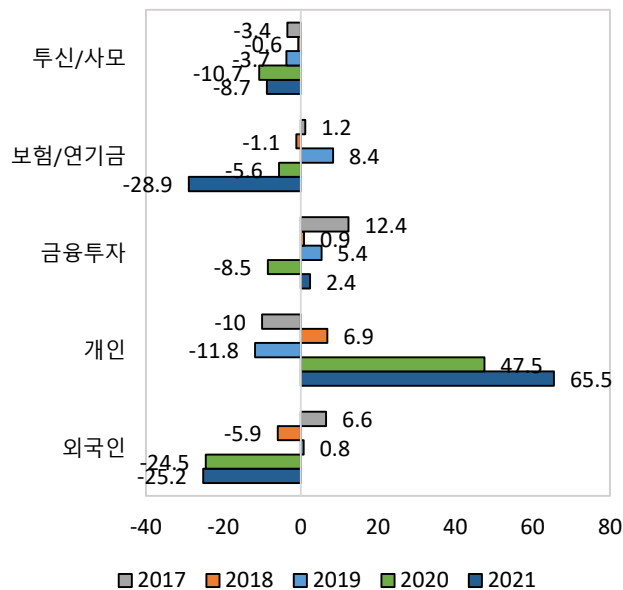
# 2021년 주식시장 리뷰 2: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둔화

## ○ 2021년 주식시장 주요 순매수 주체 개인(+76조원), 주요 순매도 주체 외국인(-25.4조원)

- › 개인은 KOSPI에서 65.5조원 순매수, KOSDAQ에서 10.5조원 순매수 기록
- › 보험/연기금 지난 7년간 최대 규모인 28.7조원 순매도

투자주체별 순매수금액(KOSP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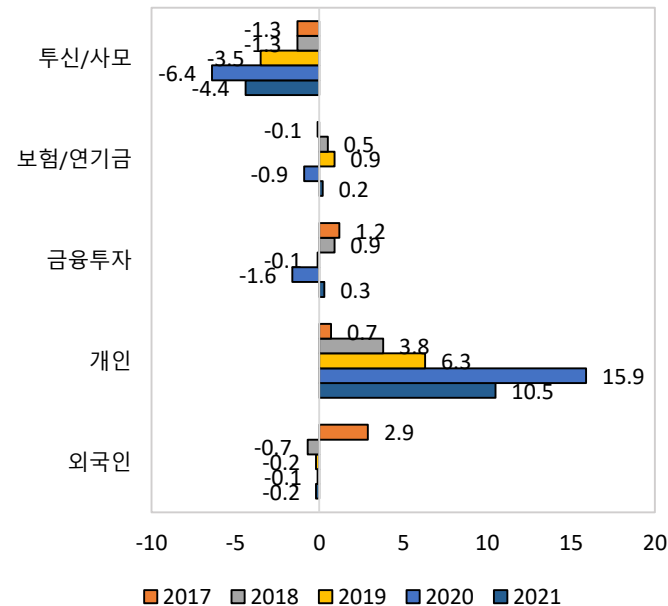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원)



자료: DataGuide, 자본시장연구원

투자주체별 순매수금액(KOSDAQ)

(단위: 조원)



자료: DataGuide, 자본시장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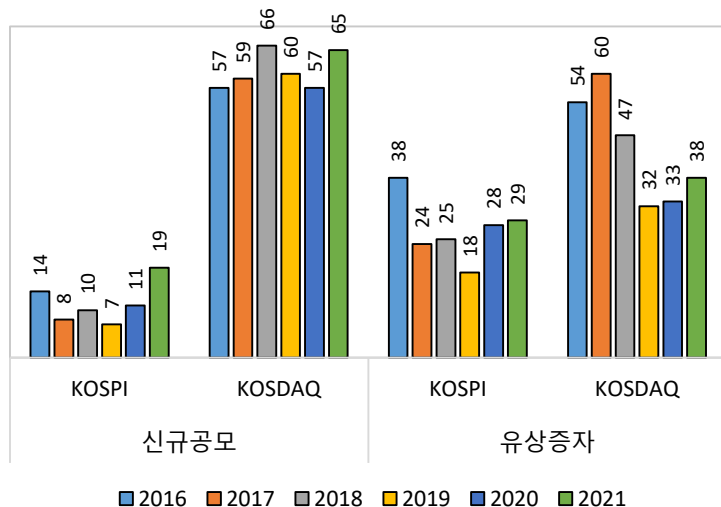
# 2021년 주식시장 리뷰 3: 기록적 IPO와 유상증자

## ○ 신규공모와 유상증자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KOSPI는 규모 면에서 기록적 수준

- › 신규공모의 경우 2020년 68건, 5.5조원에서 2021년 84건, 20.2조원으로 증가
- › 유상증자의 경우 2020년 61건, 6.1조원에서 2021년 67건, 12.8조원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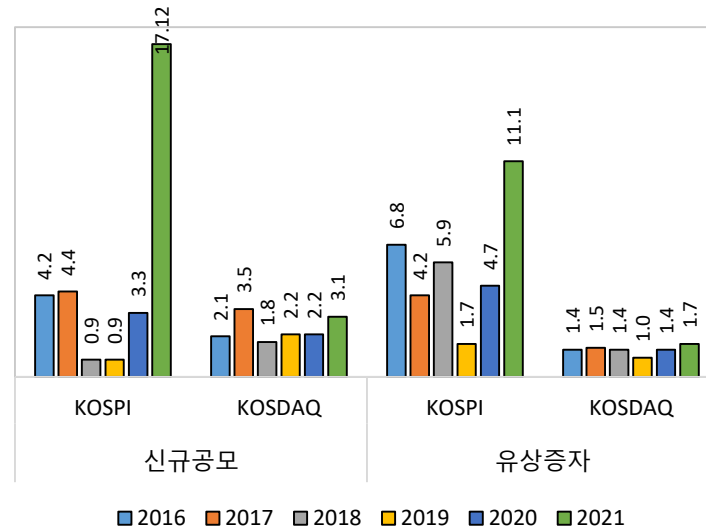
### 신규공모 및 유상증자 기업 수

(단위: 개)



### 신규공모 및 유상증자 금액

(단위: 조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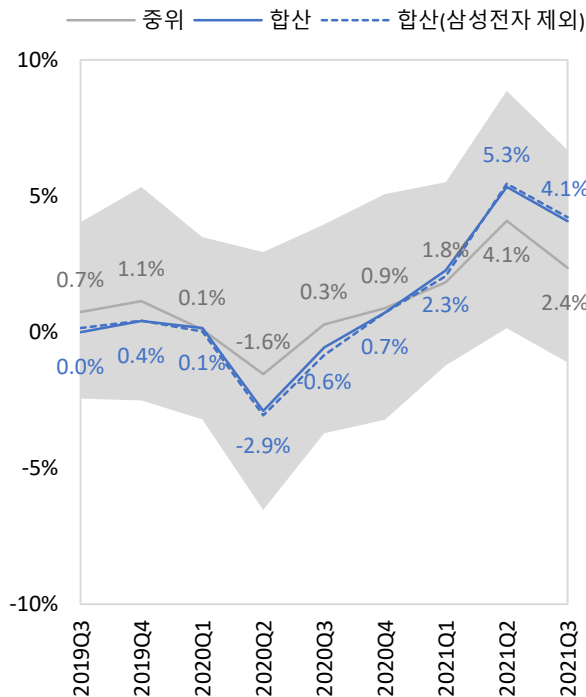
주 : 1) SPAC 제외  
 2) 유상증자의 경우 2021년 11월까지의 자료  
 자료: KRX, DART, 자본시장연구원

# 기업실적 추이 1: 대기업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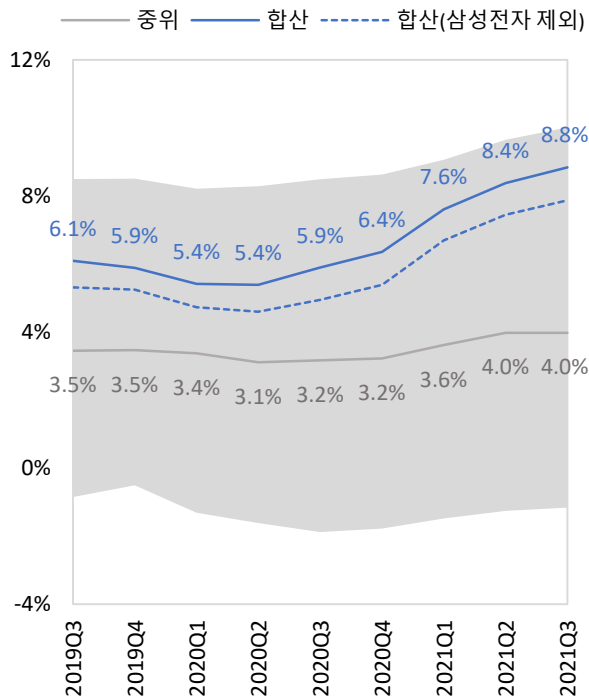
## ○ 상장기업 실적은 2020년 2분기 코로나19 충격 이후 상승세 지속

- › 합산기준 ROE는 2020년 2분기 3.2%에서 2021년 3분기 8.9%로 빠르게 상승
- › 수익성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서 현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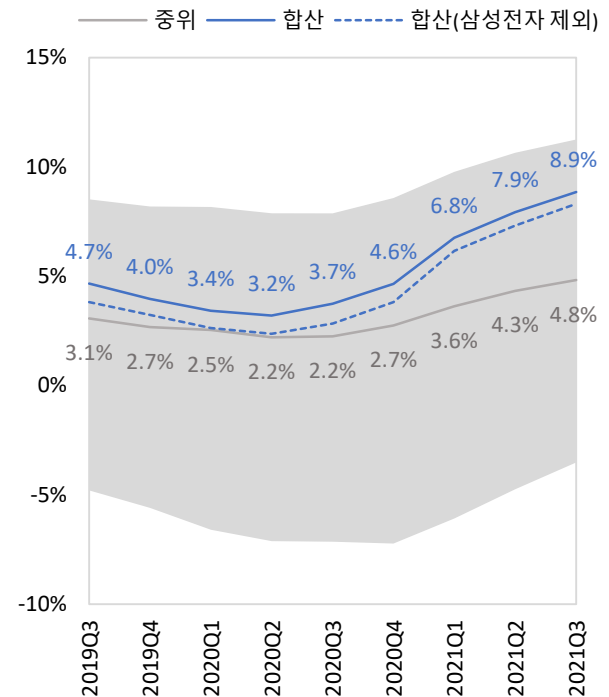
매출액성장률



매출액영업이익률



ROE



주: 1) 분석기간의 분기자료가 존재하는 KOSPI, KOSDAQ 상장기업 대상으로 함(SPAC 제외)

2) 매출액성장률은 최근 4분기 매출액의 전분기 대비, 매출액영업이익률과 ROE는 최근 4분기 기준

# 기업실적 추이 2: 코로나 충격 회복 및 IT 수익성 주도

## 모든 섹터의 실적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는 가운데 IT, 의료 수익성 견조

- 에너지, 소재 등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업종에서 매출이 빠르게 반등
- 반면, 코로나19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IT, 의료 섹터의 높은 수익성 지속

섹터별 매출액 성장률

분기	경기	산업	소재	에너지	유틸	의료	통신	필수	IT
2019Q4	2.0%	0.9%	-0.9%	-2.7%	-1.3%	4.7%	1.2%	1.9%	-0.5%
2020Q1	0.0%	0.5%	-1.1%	-1.9%	-1.3%	3.3%	0.8%	0.1%	1.1%
2020Q2	-5.0%	-3.3%	-3.5%	-8.3%	-0.9%	4.0%	0.2%	-0.2%	-0.3%
2020Q3	0.0%	-2.3%	-1.4%	-6.7%	-1.6%	4.6%	0.3%	0.4%	2.7%
2020Q4	1.8%	0.7%	1.3%	-5.9%	-2.2%	4.2%	1.4%	0.3%	2.6%
2021Q1	2.9%	0.7%	4.4%	-0.7%	-0.2%	3.0%	1.2%	1.5%	4.6%
2021Q2	7.3%	4.1%	9.9%	8.9%	1.3%	2.4%	0.8%	1.9%	4.8%
2021Q3	2.0%	4.4%	8.4%	9.8%	3.3%	1.9%	1.0%	2.1%	3.7%

섹터별 매출액 영업이익률

분기	경기	산업	소재	에너지	유틸	의료	통신	필수	IT
2019Q4	4.2%	3.6%	5.1%	3.6%	0.5%	6.3%	5.4%	6.6%	9.3%
2020Q1	3.9%	3.4%	4.6%	0.8%	1.7%	6.6%	5.3%	6.5%	9.1%
2020Q2	3.3%	3.2%	4.2%	-0.2%	2.2%	7.5%	5.6%	6.7%	9.8%
2020Q3	3.1%	3.5%	4.4%	-1.0%	3.3%	8.8%	5.8%	6.8%	11.1%
2020Q4	3.3%	3.6%	5.0%	-1.5%	5.9%	10.1%	6.1%	6.9%	11.7%
2021Q1	4.0%	4.3%	6.8%	2.9%	6.0%	11.1%	6.4%	7.3%	12.3%
2021Q2	4.8%	4.5%	9.0%	4.2%	4.8%	10.7%	6.6%	7.0%	13.3%
2021Q3	5.2%	5.0%	10.0%	5.0%	1.4%	10.1%	6.8%	7.0%	14.3%

주: 1) 분석기간의 분기자료가 존재하는 KOSPI, KOSDAQ 상장기업 대상으로 함(SPAC 제외)  
 2) 매출액성장률은 최근 4분기 매출액의 전분기 대비,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최근 4분기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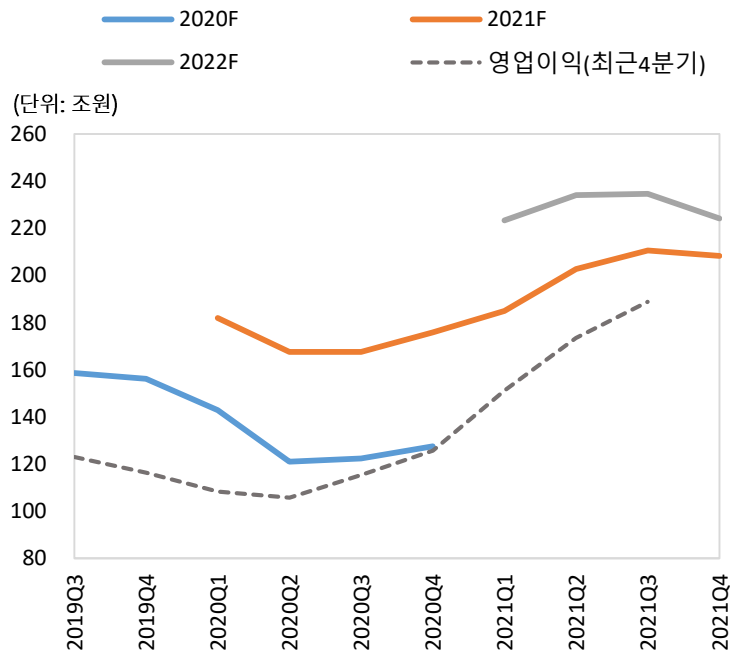


# 기업실적 전망: 일부 빠른 매출 회복, 이익 전망 둔화

## ○ 2022년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하나,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21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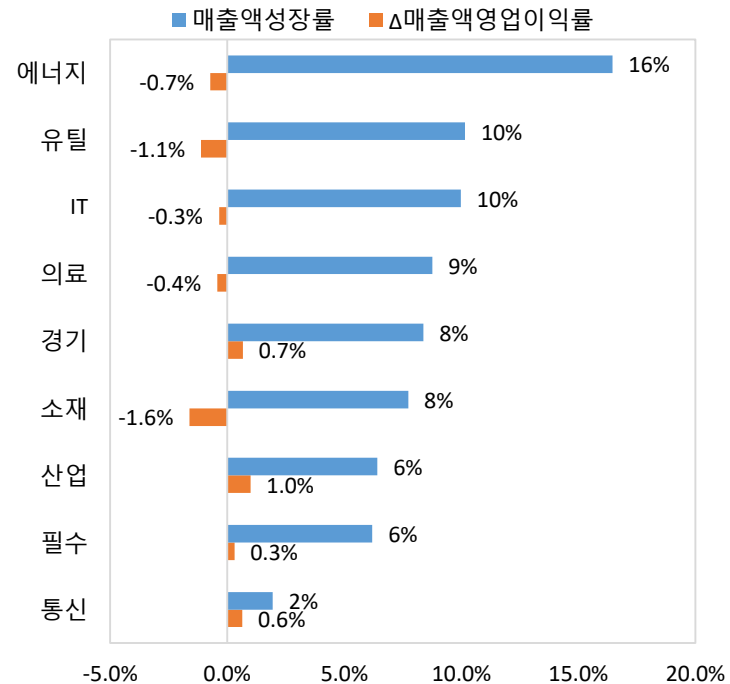
- › 2022년 영업이익은 2021년 대비 7.6% 상승 전망, 단 전망치는 최근 하향 조정되는 양상
- › 2022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21년 대비 0.1% 감소할 것으로 전망

애널리스트 전망: 영업이익



주: 분석기간의 전망자료가 존재하는 282개 KOSPI, KOSDAQ 상장기업 대상

2021년 대비 2022년 실적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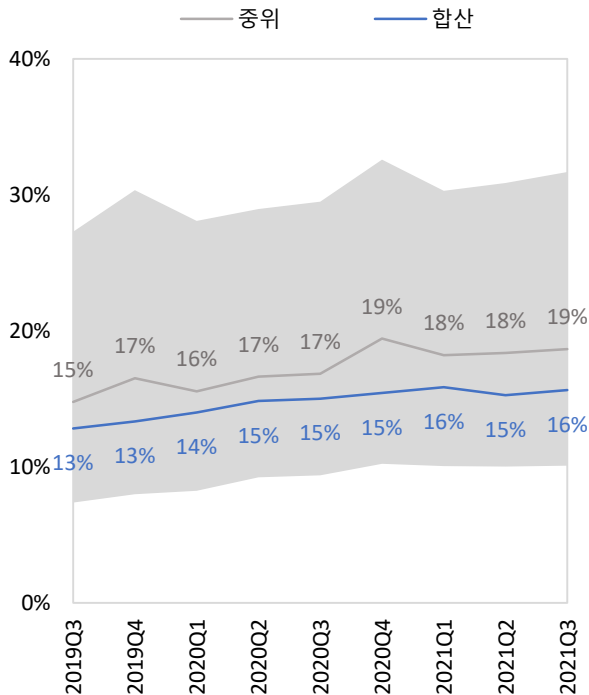
주: 2021년 실적전망과 2022년 실적전망은 2020년 12월 섹터별 합산 기준

# 기업리스크: 표면적으로는 한계기업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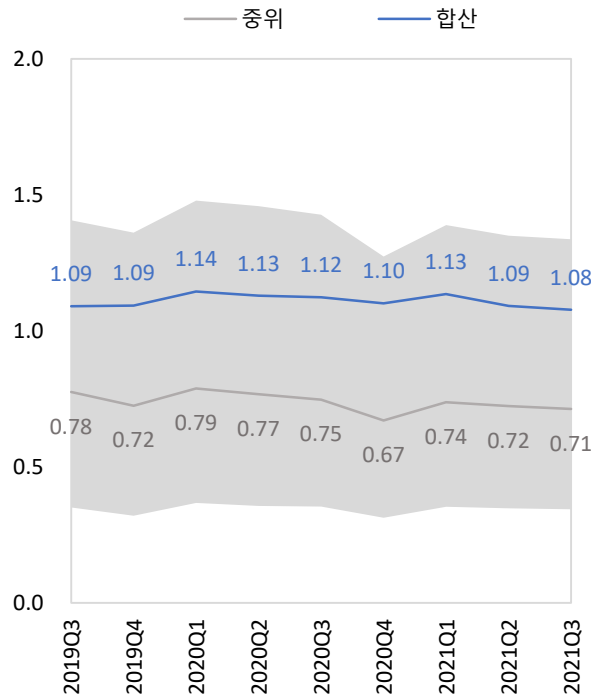
## ○ 영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장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외양적으로 개선되는 모습

- › 2021Q3 기준 한계기업(이자보상배율 1미만) 비중은 34%로 전년 동기 대비 6%p 감소
- › 현금보유비중의 완만한 증가, 부채비율 완만한 감소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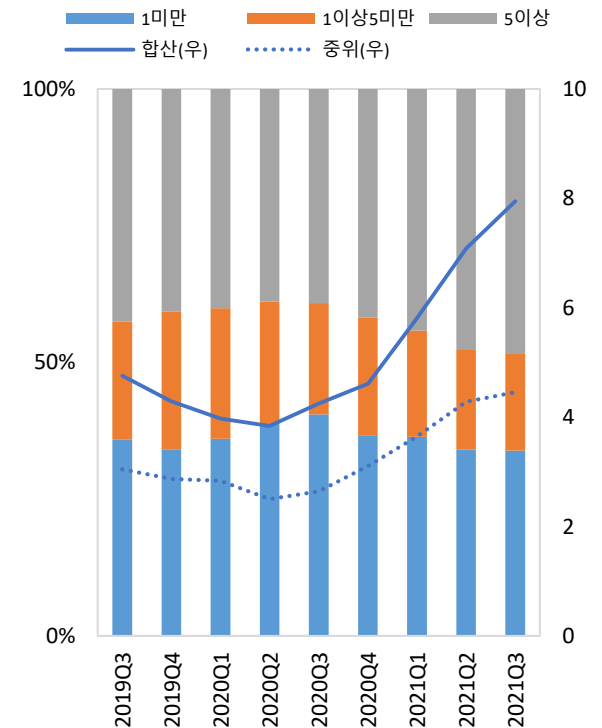
현금보유비중



부채비율



이자보상배율



주: 1) 분석기간의 분기자료가 존재하는 KOSPI, KOSDAQ 상장기업 대상으로 함(SPAC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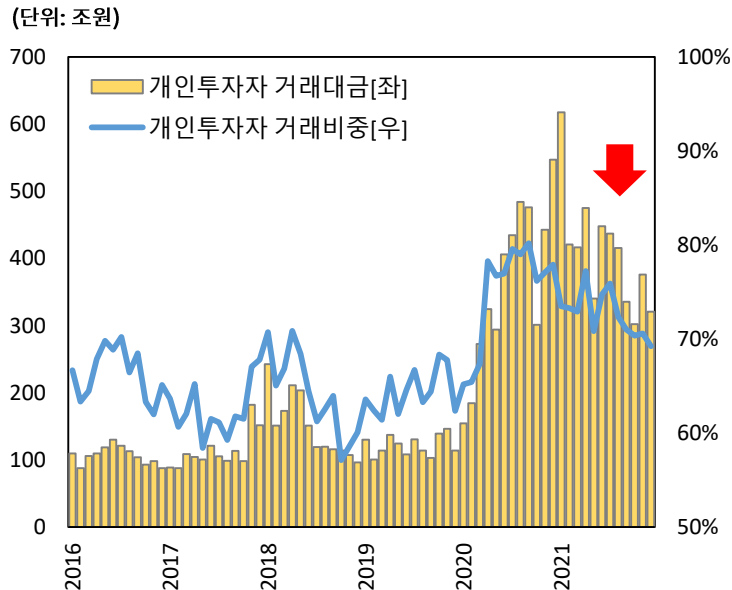
2) 부채비율은 총부채/총자본이며, 이자보상배율은 최근 4분기 기준

# 개인투자자 거래 동향 1: 거래대금 및 거래비중 감소

## ○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은 정점에 도달('21.01)한 뒤 서서히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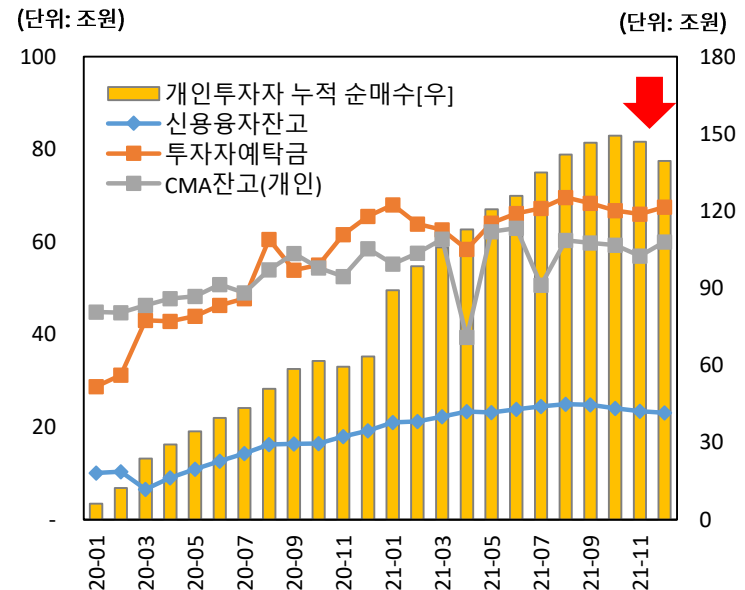
- › 2020년 이후 약 80%에 달하던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은 2021년 말 70% 미만으로 감소
  - 유가증권시장 내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은 53%까지 감소하였으며, 작년 11월 이후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도 관찰
- › 대기성 자금(예탁금, CMA잔고) 및 신용융자잔고의 증가세도 2021년 하반기 이후 둔화
  - 성장세 둔화, 통화정책 기조 변경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선호도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

### 개인투자자 거래대금 추이



주 :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합산 (거래대금 = (매도+매수)/2)  
 자료: KRX, DataGuide

### 증시 대기성 자금 및 신용융자잔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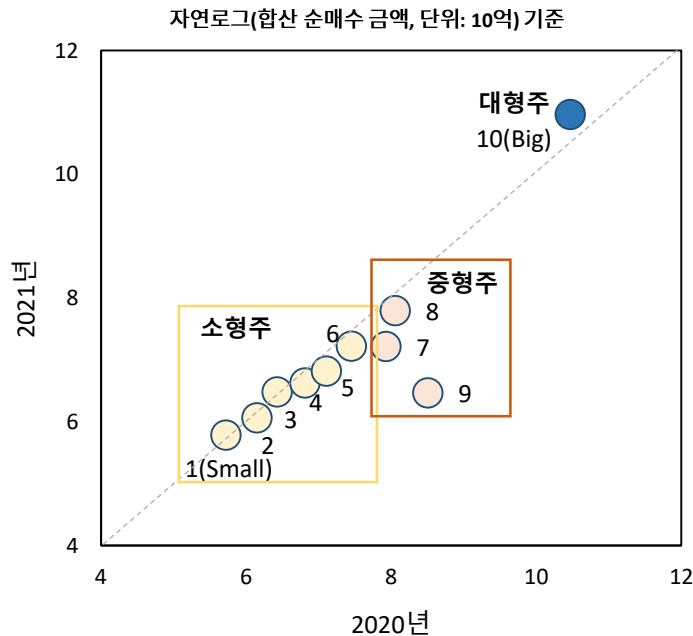
주 :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합산  
 자료: 금융투자협회 Portal, DataGuide

# 개인투자자 거래 동향 2: 대형주 및 IT·소재 섹터 선호

## 2021년 개인투자자는 대형주 선호를 지속했으며, 섹터별 투자 선호도가 차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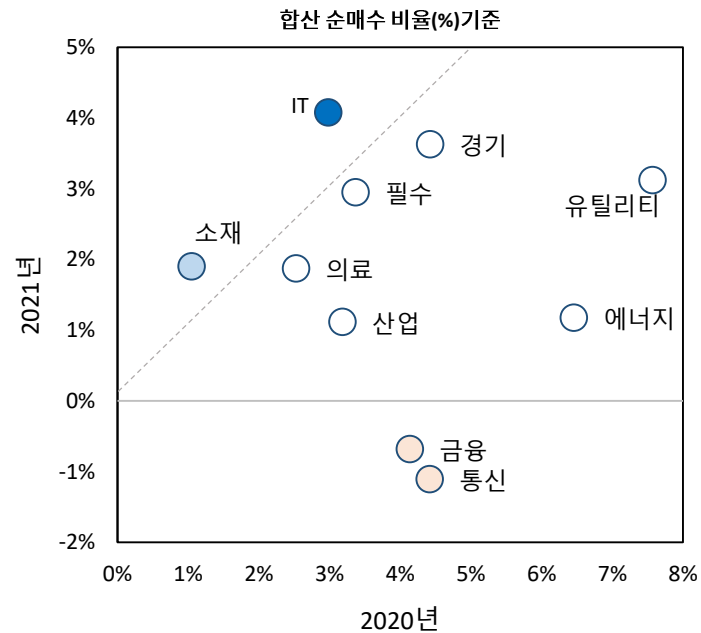
- 2021년 개인투자자의 대형주(시가총액 상위 10%) 순매수금액은 전년대비 약 64% 증가
  - 이 외 중소형주 순매수금액은 전년대비 유사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IT 및 소재 섹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반면, 금융·통신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감소

시가총액 그룹별 개인투자자 순매수 금액 변화



주 : 시가총액 10그룹 별 Log(순매수금액) 변화 비교 (순매수금액 단위: 10억원)  
자료: DataGuide

섹터별 개인투자자 순매수 비율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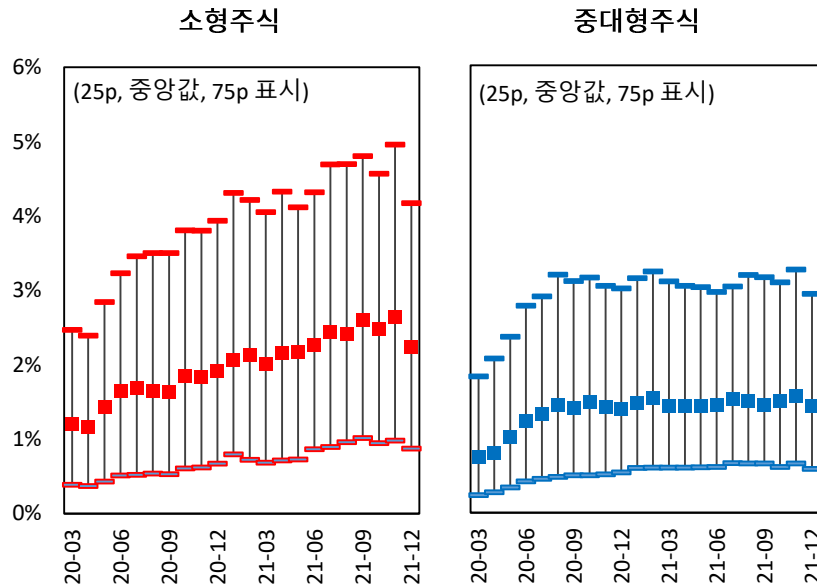
주 : 섹터별 연간 합산 순매수비율(=순매수금액/시가총액) 변화 비교  
자료: DataGuide

# 주요이슈: 소형주를 중심으로 신용 잔고 비중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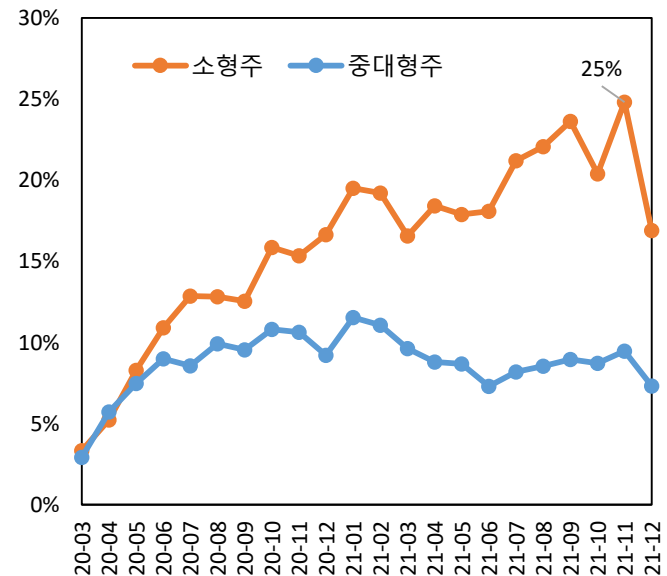
## ○ 소형주식을 중심으로 신용융자로 매수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

- › 소형주식(시가총액 하위 60%) 내 신용융자잔고 비율 5% 이상인 종목 비중이 25%('21.11)까지 증가
  - 최근 들어('21.12) 감소했으나 소형주식 내 신용잔고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형성
- › 투자위험도가 높은 종목에서 상방·하방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

시가총액 그룹별 신용융자잔고 비율 분포 추이



시가총액 그룹별 신용융자잔고 비율 5% 이상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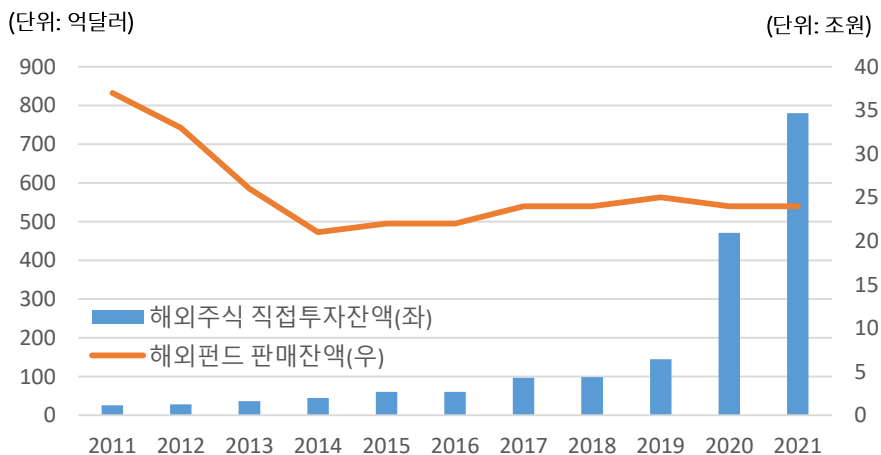
주 :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보통주식 기준 (종목별 전월 시가총액 하위 60%를 기준으로 소형주, 중대형주 구분)  
자료: DataGuide

# 주요이슈: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확대

## 2021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확대 추세 지속

- 2021년 말 한국예탁결제원 해외주식 보관잔액은 780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66% 증가
- 최근 해외주식 직접투자 확대 추세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관심 확대 및 투자 편의성에 기인
  - 투자 편의성 측면에서 개인 등 소매고객의 국내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비용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
-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경로는 간접투자 → 직접투자 방식으로 이동
  - 최근 10년간 해외주식 직접투자 잔액은 30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개인투자자 해외펀드 판매잔액 감소
- 분산투자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고수익·고위험 투자방안으로 인식
  - 최근 6개월간 상위 투자종목에는 3배 레버리지 ETF 등 高 레버리지 상품 포진

### 해외주식 직접투자 및 해외펀드 판매 잔액 추이



주 : 해외펀드 판매잔액은 개인 대상 해외자산 투자 30% 이상 해외펀드 판매잔액 기준  
자료: 한국예탁결제원, 금융투자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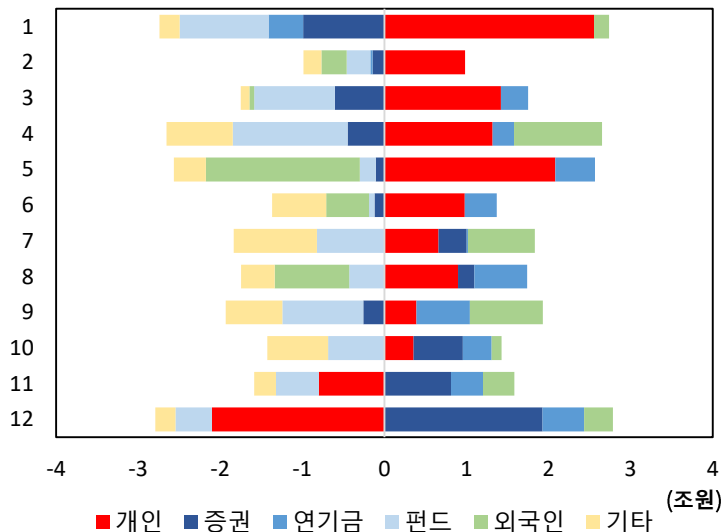
# 주요이슈: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

## ○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(주식 양도세)는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

- >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(현행 10억, 1%)
  - 양도세 절세(tax avoidance)를 위한 거래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, 기본 공제금액이 5,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> (참고) 과거 개인투자자는 세금 결산시기 이전(11~12월)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(순)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
  - 당시 개인투자자의 순매도에는 절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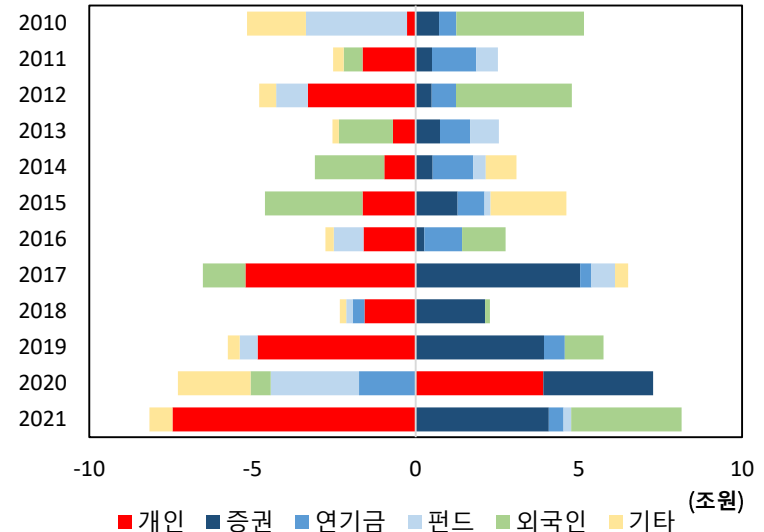
월평균 투자자 유형별 순매수(매도)

(단위: 월)



연도별 투자자 유형별 12월 순매수(매도)

(단위: 년)



주 :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합산 기준 (자료기간: 2010~2021년)  
 자료: DataGuid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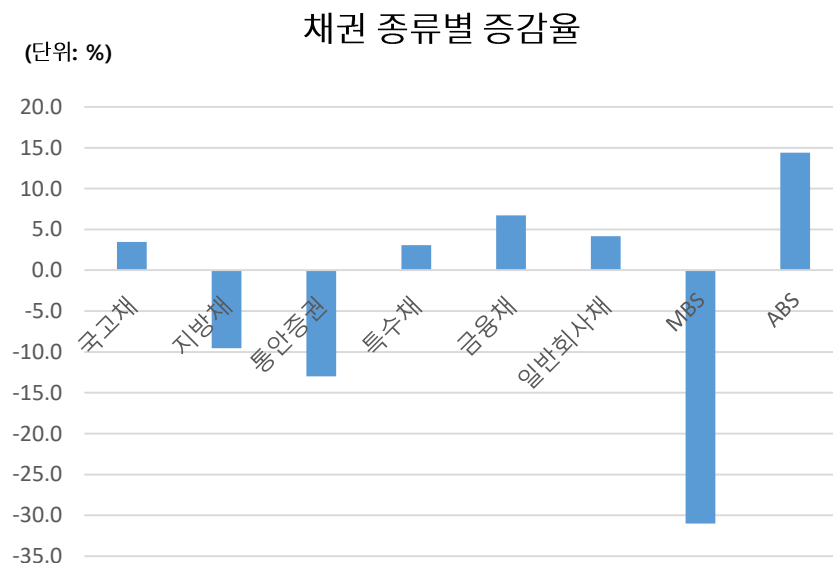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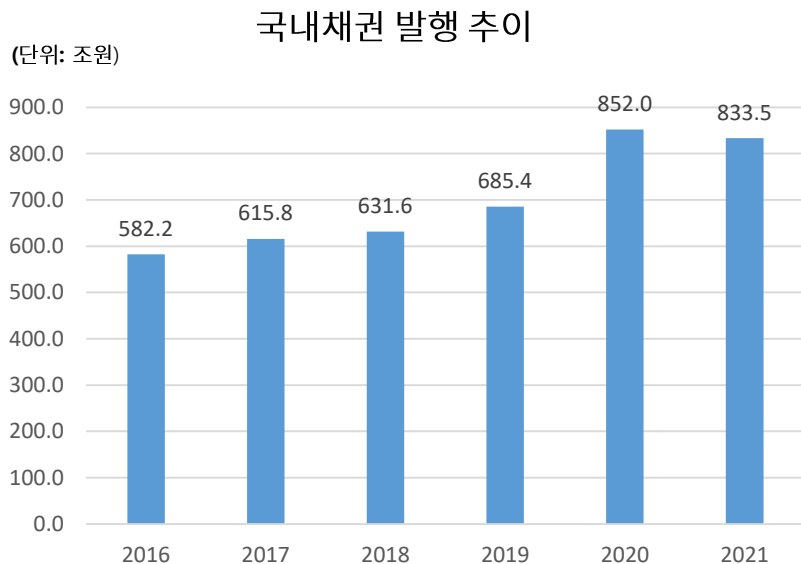
## 2. 채권시장 리뷰 및 전망



# 2021년 채권시장 리뷰 1: 채권 발행 둔화

## ○ 2021중 국내 채권 발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

- ▶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국고채 발행은 전년 대비 3.4% 증가한 180.5조원 기록
  - 전체 발행 채권 중 국고채 비중은 2020년 23.1%에서 2021년에는 24.1%로 증가
- ▶ 특수채, 금융채, 일반회사채 및 ABS 발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채, 통안증권, MBS 발행 감소
  - MBS의 경우 2020년 안심전환대출에 기초한 MBS발행 증가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대폭적인 감소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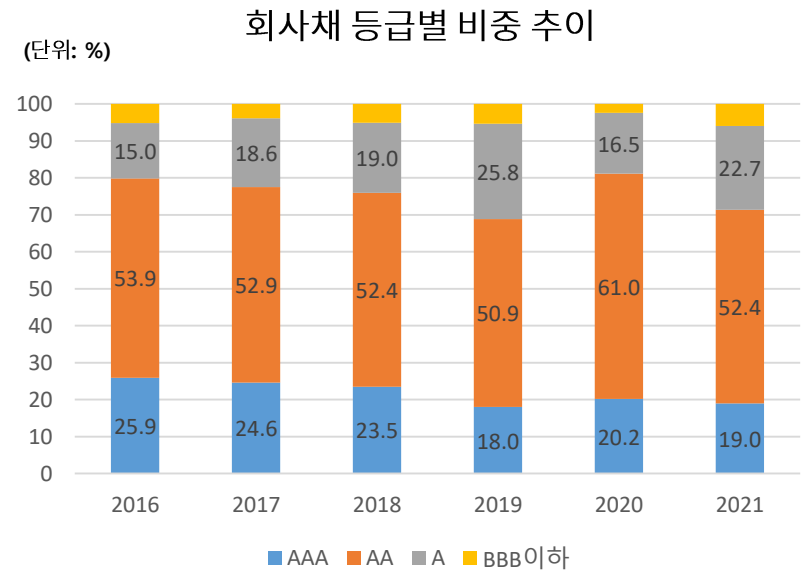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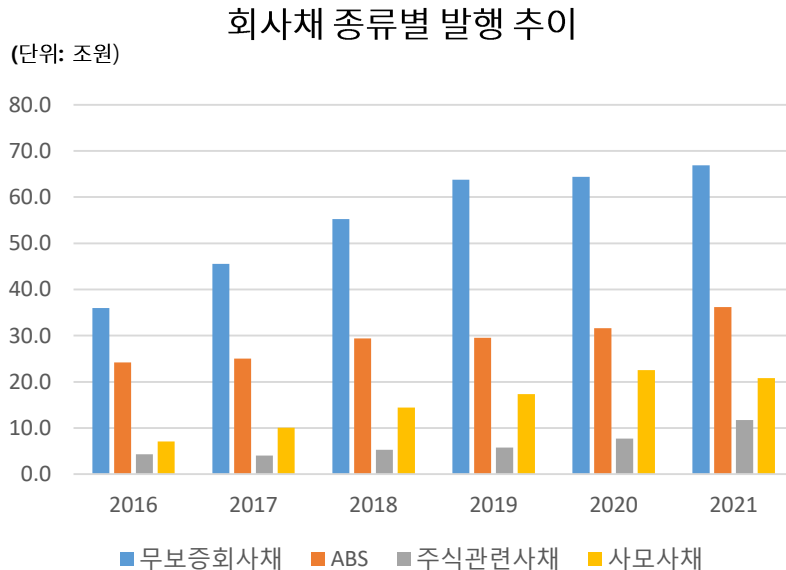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인포맥스, 자본시장연구원

# 2021년 채권시장 리뷰 2: 회사채 발행 소폭 증가

## ○ 2021년 회사채 발행(ABS포함)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36조원 기록

- ▶ 사모사채 발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무보증회사채, ABS 및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은 증가
- ▶ 무보증회사채의 신용등급별 비중을 보면 AA등급 이상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A등급의 비중은 증가
  -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성 제고 유인으로 A등급에 대한 수요 증가가 A등급 비중 증가의 주요 요인



자료: 인포맥스, 자본시장연구원

# 2021년 채권시장 리뷰 3: 가파른 금리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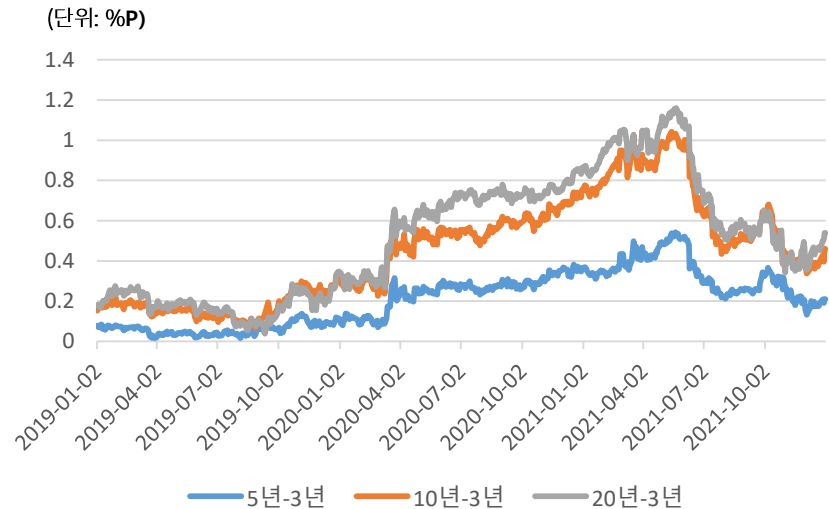
## ○ '21년 채권수익률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,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큰 폭 상승

- › 연초 경기회복기대감,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크게 상승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안정세 전환
  - 하반기 들어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 등으로 10월말까지 가파른 상승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 전환
- › 기간 스프레드는 상반기중에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축소되는 추이
  -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단기물 국채금리 상승이 기간 스프레드 축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

국고5년 만기수익률 추이



기간 스프레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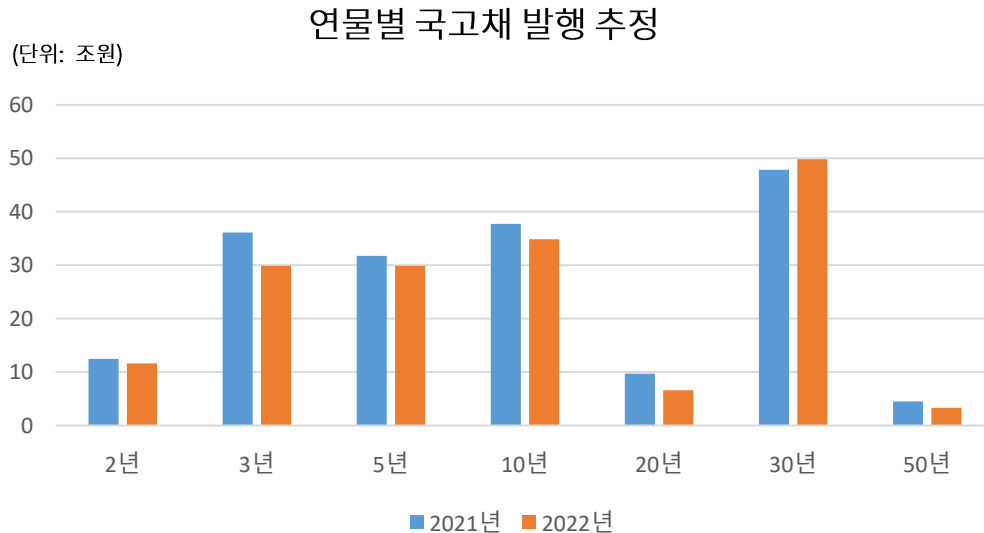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# 2022년 채권시장 전망 1: 국채 발행 증가 예상

## ○ 향후 국고채 발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› 대선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한 추경 등의 영향으로 발행한도가 확대되면서 실제 발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  -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고채 발행한도를 전년 발행액 대비 8.0% 감소한 166조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수정 가능성
- › 연물별 비중은 단기물과 중기물은 금리인상, 추경 등 수급 요인을 감안하여 줄어드는 대신 장기물은 보험사 등 수요를 감안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› 향후 국고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로 인한 금리 상승 요인도 존재
- › 국채 잔액 증가에 따른 수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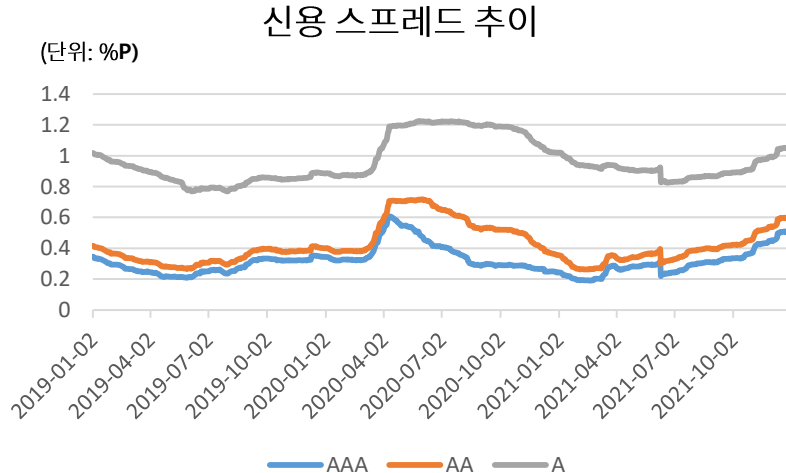


주 : 2022년 국고채 발행 규모 및 연물별 배분 계획에 근거하여 연물별 발행규모를 추정  
자료: 기획재정부, 자본시장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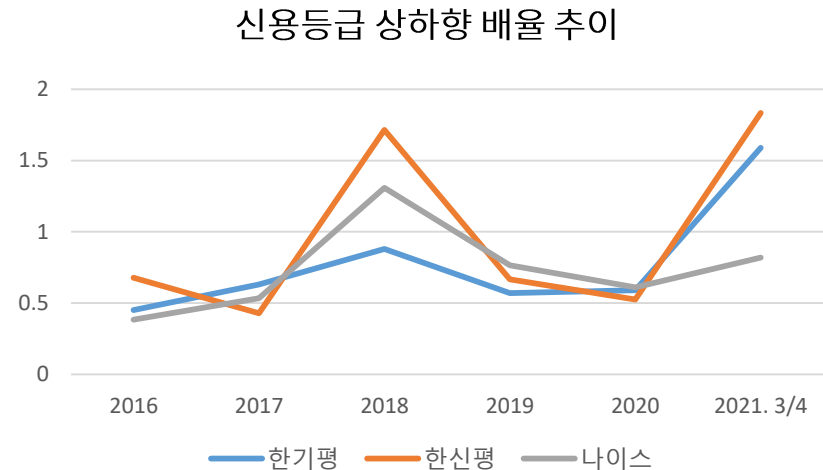
# 2022년 채권시장 전망 2: 신용스프레드 확대 예상

## ○ 기준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

- > 2021년 10월 이후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금리 상승 및 수급 요인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- > 2022년에도 우량채 선호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신용채권시장의 양극화 지속 예상
- >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발행기업의 실적 호조로 신용등급 상하향 배율 상승
  - 향후 경기 회복 속도, 기업 자금수요의 변동성, 개별 기업의 실적 및 금리 등에 따라 2022년 신용채권시장의 신용등급별 비중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



주 : 등급별 신용스프레드는 (등급별 3년 수익률-국고채 3년 수익률)로 계산  
 자료: 금융투자협회, 자본시장연구원



주 : 상하향 배율은 (등급 상향 기업수/ 등급 하락 기업수)로 계산  
 자료: 신용평가3사 공시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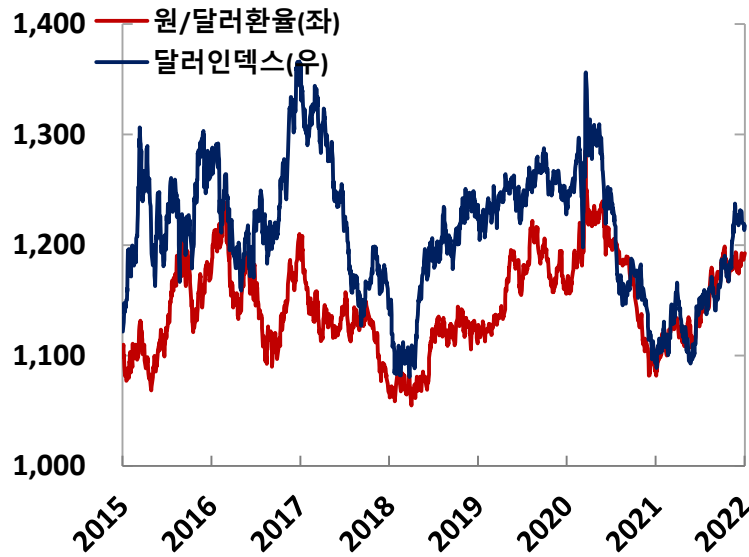
### **3. 외환시장 리뷰 및 전망**

# 2021년 외환시장 리뷰 1: 원화 및 신흥국 통화 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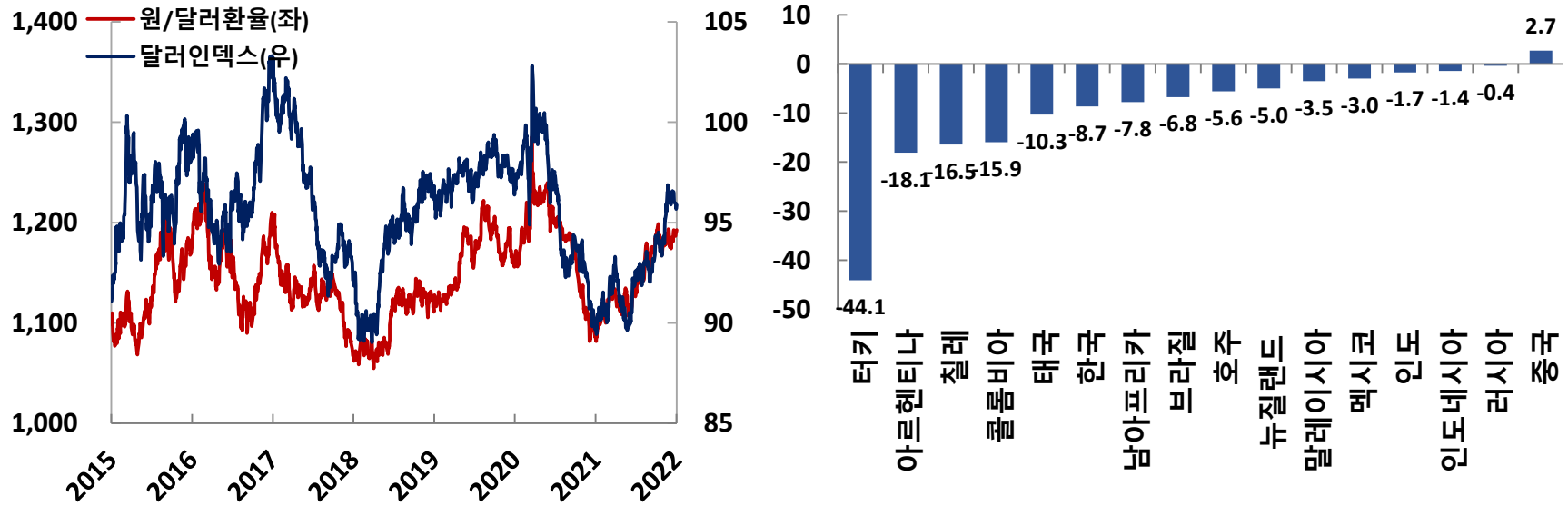
- 원/달러환율은 2021년 말 1,188.8를 기록하며 전년 말 대비 8.6% 절하
- 지난해 원화 약세는 미달러화의 강세 등 해외요인에 주로 기인
  - › 달러인덱스는 2020년 말 89.9에서 2021년 말 95.7로 상승(미달러화 6.4% 강세)
  - › 주요 신흥국 통화들도 2021년 중 미달러화 강세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약세를 시현
- 금년 1월 들어서도 원/달러환율이 1,200원을 상회하며 약세가 가속화되는 모습

원/달러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

(단위: 달러/원)



(1973=100)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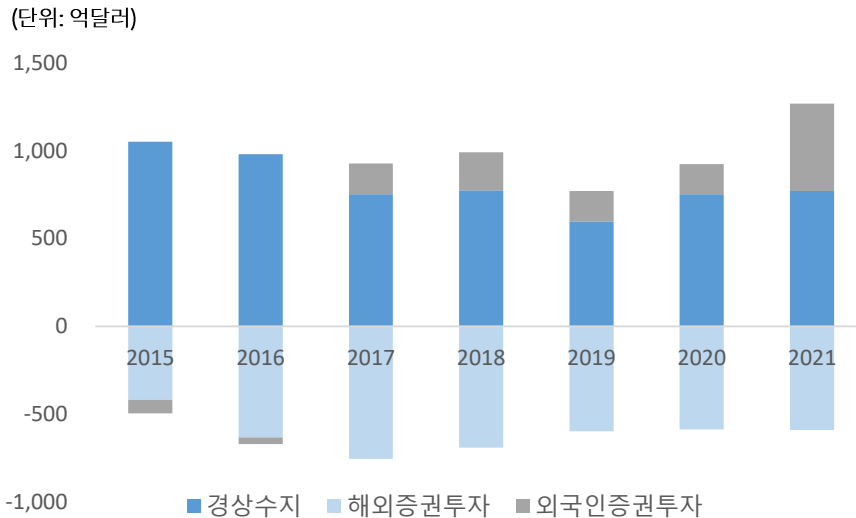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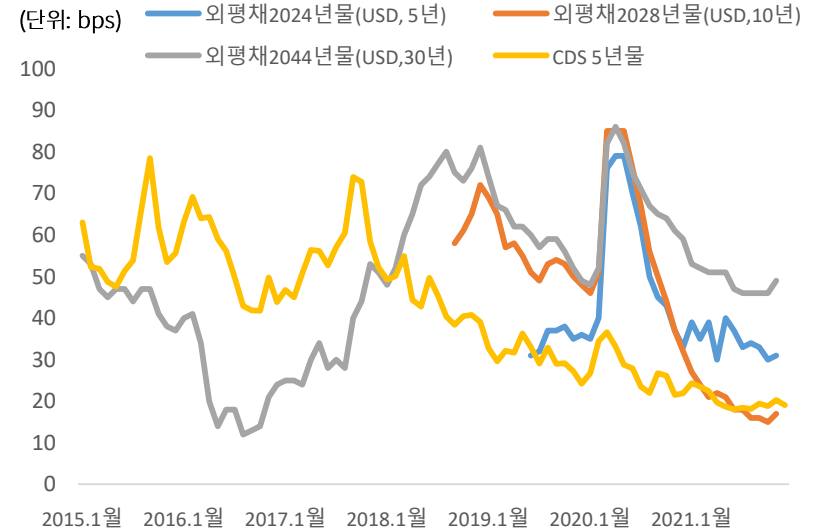
# 2021년 외환시장 리뷰 2: 외환수급은 공급우위 지속

- 2021년 중 외환수급은 해외증권투자의 꾸준한 증가세에서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,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유입 등으로 국내로의 외환 순 공급 지속
-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역시 양호한 모습 유지
  - › CDS프리미엄 : 2019년 말 24.2 → 2020년 말 21.9 → 2021년 말 19.1

형태별 국제수지



외평채 CDS프리미엄 및 가산금리



주 : 2021년은 1~10월 중  
자료: 한국은행 ECO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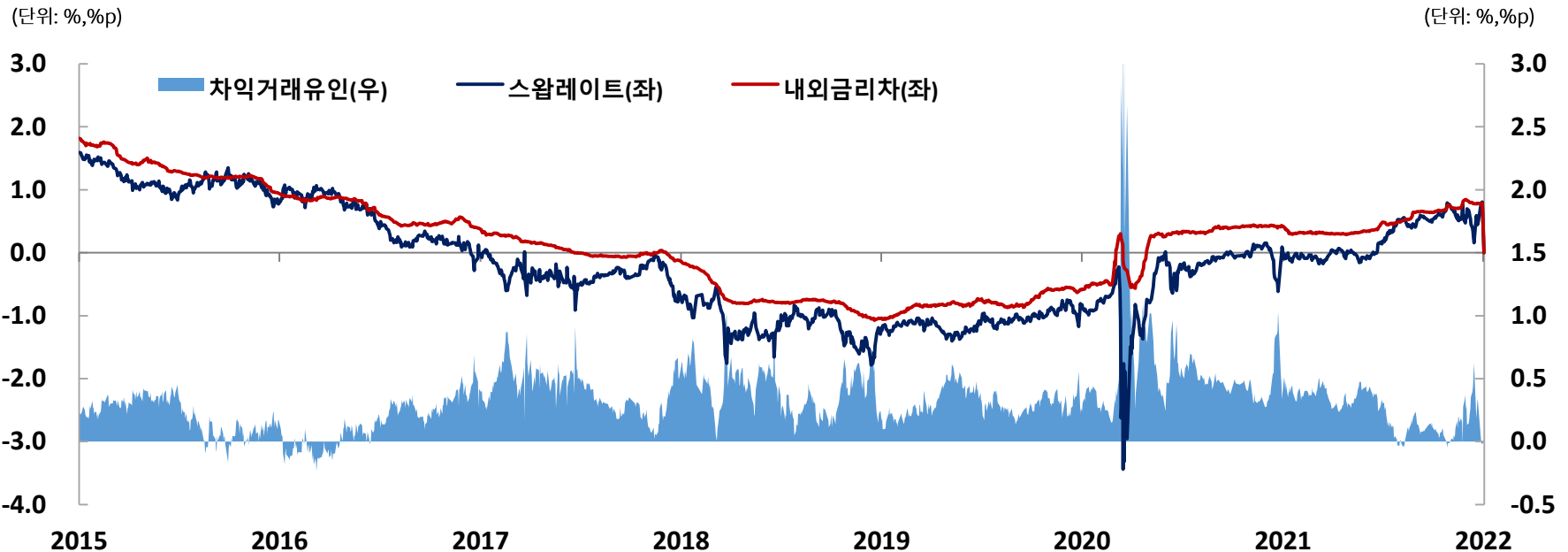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(CDS), 기획재정부(외평채 가산금리)



# 2021년 외환시장 리뷰 3: 국내 외화자금시장 안정세

- 2021년 중 외환스왑(FX swap)시장에서 스왑레이트와 내외금리차의 괴리폭은 하반기 크게 감소하며 균형 회복
  - ▶ 차익거래유인(괴리폭) : 2020년 1월(일평균) 0.40 → 8월 0.07 → 12월 0.27
- 미연준의 통화정책 변화, 코로나19 영향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수급 안정 상황

차익거래유인 추이



주 : 차익거래유인은 내외금리차(통안증권-libor) 및 스왑레이트 차이를 의미  
자료: 한국은행, Bloomberg 및 저자 시산

# 2022년 외환시장 전망: 환율은 하반기 하락전환 전망

## ○ 원화환율은 하반기 하락 전환하여 연말 1,140~1,180원 수준 예상

- › 상반기중에는 미금리 인상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, 글로벌 위험선호 등 해외요인의 영향이 클 전망
- › 하반기 중에는 미국의 물가 및 금리가 안정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증가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원화약세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
  -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: 미국 4.2%, 한국 3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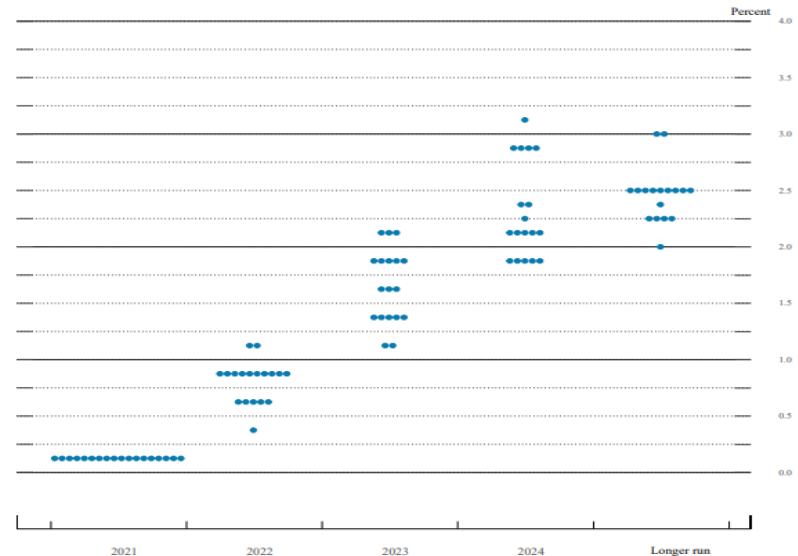
미 정책금리 인상예측 범위

(단위: %)

예측시기		
	2021년 9월	2021년 12월
2022	0.1-0.4	0.6-0.9
2023	0.4-1.1	1.4-1.9
2024	0.9-2.1	1.9-2.9
장기	2.3-2.5	2.3-2.5

자료: FRB(2021.12)

미 연준 금리 인상 점도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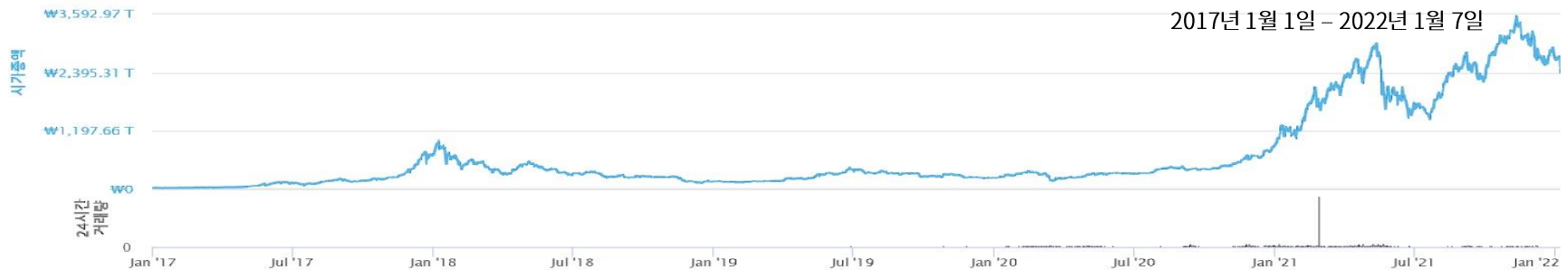
## 4. 가상자산시장 현황 및 전망

# 가상자산시장 현황: 가상자산시장의 추세적 성장

## ○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과 거래규모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
- 2022년 1월 7일 현재 집계가능한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2,385조원이며, 일일 거래대금은 약 162조원
  -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은 국내 유가증권시장(KOSPI)의 상장 시가총액(2022년 1월 7일 현재 약 2,187조원)과 유사

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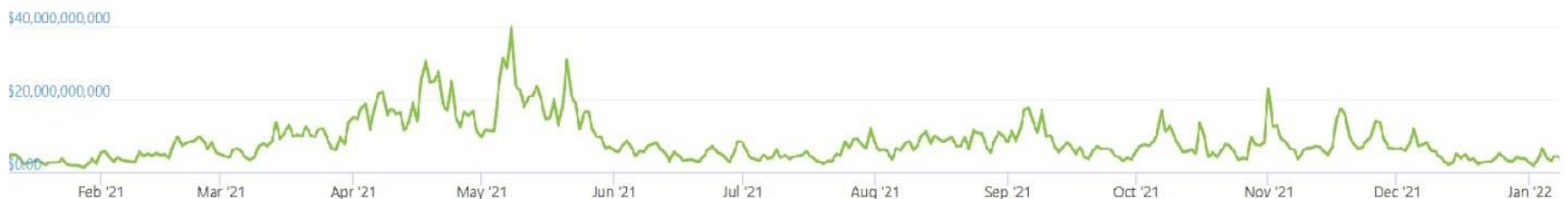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CoinMarketCap

## ○ 2021년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업자 거래플랫폼에서의 일일 거래대금은 10조 이상으로 코스닥시장의 일일 거래대금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(단,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대금의 변동성이 매우 큼)

-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예치금 (가상자산예치금 및 원화예치금 포함)은 약 59조3,814억원 규모 (2021년 8월 31일 기준, 강민국 의원실)

Upbit의 연중 일일 거래대금 (2021.1.9.-2022.1.8)



자료: CoinGecko

# 가상자산시장 전망 1: 기관투자자의 본격적인 참여

## ○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참여는 가상자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어오고 있음

- ▶ 또한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은 전문투자자의 관심을 촉발시켜 가상자산 사모투자 등을 활성화시킴



자료: Coin Metrics (2021)



자료: PWC (2021)

## ○ Goldman Sachs, JPMorgan Chase, Morgan Stanley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(PE, PI)를 확대하며 ETF, 커스터디, 증권토큰 발행·유통 등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 추진 예상

- ▶ 미국 투자은행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에 따라, 자율규제기구인 FINRA는 회원사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및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
  - 가상자산 관련 영업행위에 대해 회원사 소속 위험감시 애널리스트의 모니터링을 받게 함
- ▶ 2022년부터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
  - 국내 대형 금융투자회사 CEO들이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즉, 투자자산군 편입, ETF 출시, 커스터디 사업진출, NFT와 메타버스 관련 상품개발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

# 가상자산시장 전망 2: 국제적 제도 정비

- 규제체계 정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준수 비용을 증가시키지만, 가상자산업 제도화로 투자자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전망됨
  - ▶ 주요 제도화 이슈: i) 미국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, ii) 미국 Ripple 소송의 결과, iii) EU의 MiCA규제안 입법화
  - ▶ [가상자산현물 ETF의 승인] 미국 SEC가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승인하게 되면 금융투자업계의 대규모 자금이 가상자산에 투자되고 가상자산 투자의 제도권 진입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됨
    - 지난 11월 12일 SEC는 VanEck의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승인 신청에 대해, “투자자 및 공공 이익의 보호”에 미흡함을 이유로 불승인 명령(disapproval order)을 내렸으나 (SEC Release No. 34-93559), SEC가 가상자산거래플랫폼에 대한 직·간접적 감독 권한을 확보하는 경우 가상자산 ETF 승인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    - 가상자산 ETF는 암호키 관리의 불편과 위험이 적고, 쏫포지션을 통한 위험관리가 용이하며, 현물시장에 대한 큰 영향없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에 힘입어 가상자산 투자시장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
  - ▶ [Ripple 소송의 결과] 연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Ripple사의 XRP 관련 소송의 결과는 증권토큰과 일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용(증권법 적용 여부)에 있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
    - 미 연방법원의 SEC v. Ripple 판결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짐
  - ▶ [MiCA규제안 입법화] 연내 MiCA규제안 유럽 의회와 이사회 통과시 회원국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 적용
    - MiCA 입법은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와 자본시장 규제체계의 수렴현상을 촉발할 수 있음
    - 증권의 토큰화(증권토큰, 부동산 NFT 등)도 양 규제체계의 수렴화를 가속화 시킬 전망
    - 결국 가상자산 IT업계와 전통적 금융업계의 경쟁과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